



설날은 스킨레톤 골든데이 윤성빈 '금 세배' 쏜다

설상 종목 첫 금 유력...7000여 팬들 직관 응원



스켈레톤 황제를 꿈꾸는 윤성빈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출격한다. 설날 국민들에게 금메달을 선사하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레이스에 나선다. 작은 사진은 손 하트를 그리고 있는 옛된 얼굴의 윤성빈. 평창 | 연합뉴스·스포츠동아DB

2018m 코스서 시속 130km '공포의 질주'
15일 1~2차 주행·16일 3~4차 결승 주행
해발 900m 강추위 불구 7000명 찾을 전망
윤성빈 "설날, 관중과 함께 할 스타트 기대"



아직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설상 종목 메달은 나오지 않았다. 겨울올림픽은 '눈과 얼음의 축제'다. 동계스포츠 약소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적어도 얼음 위에선 강국이 됐다. 쇼트트랙을 시작으로 스피드스케이팅, 그리고 '겨울올림픽의 꽃'인 피겨스케이팅까지 팀 코리아는 전 세

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여전히 눈 위에서 치르는 설상 종목의 벽은 높다. 메달을 떠나 깊은 의미가 담긴 도전은 십수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황무지를 개간해 육토로 만들고 씨를 뿌리는 힘든 여정이었다. 그 노력과 헌신의 힘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눈발 위에서의 결실을 기대하고 있다.

윤성빈(24·강원도청)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설상 메달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었다. 슬라이딩 종목은 냉혹한 공포가 느껴질 만큼 매끄러운 얼음 위를 질주한다. 그러나 태생은 눈 위에서 미끄러지는 썰매였다. 다른 빙상 종목과 달리 실외에서 열리는 특징도 있어 설상 종목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봅슬레이에서 꾸준히 세계 정상에 오른 두

드렸다. 스킨레톤은 같은 썰매 종목이지만 낯설었다. 여름과 겨울올림픽을 통틀어 가장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진다는 종목이다. 눈썰매장에서 얹혀 썰매를 타면 당장 안전요원이 호각을 부른다. 그만큼 얹혀서 주행하는 스킨레톤은 위험한 종목이다. 최고 시속 130km로 질주하지만 로프 핸들이 있는 봅슬레이, 누워서 안정감 있게 주행할 수 있는 루지와 달리 조종이 매우 어렵고 제한적이다. 스킨레톤 선수도 사람이다. 스타트 라인에 서서 썰매를 밀며 질주하는 순간엔 곧 목숨을 건 주행을 출발한다.

윤성빈은 13일 평창동계올림픽 첫 번째 공식 훈련을 마친 뒤 이렇게 털어놓았다. "다른 모든 참가 선수의 코칭스태프가 평창 올림픽슬라이딩센터 주행 경험이 많은 한국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주행은 전력을 쏟을 수 없다.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훈련 주행과 공식경기 주행 때 마음은 항상 똑같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스타트다. 관중들과 함께할 올림픽 스타트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썰매 종목 선수들은 국내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했다. 국제대회 규격을 갖춘 슬라이딩 코스는 전 세계에 고작 18개밖에 없었다. 평창 올림픽슬라이딩센터는 세계 19번째 경기장이다. 윤성빈은 스킨레톤 썰매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팬들의 함성 속에서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평창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머느리' 영애씨의 명절 서바이벌 / 맛과 멋이 넘치는 TV속 '그 곳' ▶ 설 특집 12~19면

※설연휴...19일자 부터 정상발행 합니다 sportsdonga.com 인터넷 뉴스는 계속됩니다.



이런 양배추즙 처음입니다

저원심박막농축으로 맛까지 편안한
CJ 한뿌리 맛있는 양배추 & 브로콜리

원산지: 양배추즙(양배추: 국산) 양배추즙농축액(양배추: 국산)
사과농축액(사과: 국산) 케일농축액(케일: 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 국산)
무우농축액(무: 국산) 청출진피혼합추출액(청출: 진피: 국산) 매실농축액(매실: 국산)



<연출이미지>

1 양배추즙의 불편한 맛! 저원심박막농축 기술로 잡았습니다

양배추즙의 불편한 맛과 냄새는 양배추에 열을 가할 때 발생하는 디메틸설파이드가 그 원인입니다. CJ 한뿌리 맛있는 양배추 & 브로콜리는 저원심박막농축 기술을 이용, 35~50도 수준의 온도에서 원심력으로 농축해 양배추가 열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양배추즙의 불편한 맛을 잡았습니다.

2 국내산 사과와 매실을 넣고 액상과당은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CJ 한뿌리 맛있는 양배추 & 브로콜리는 액상과당을 전혀 넣지 않고 대신 국내산 사과와 매실을 넣어 더욱 먹기 편한 맛에 안심까지 더해졌습니다. 저원심박막 농축으로 한번 사과와 매실로 또 한번! 그 동안 억하고 비린 맛 때문에 포기하거나 시도조차 못하셨던 분들께 양배추즙의 맛과 목넘김의 새로운 차원을 선물합니다.

3 양배추와 함께 청출, 진피를 함께 담아 속을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CJ 한뿌리 맛있는 양배추 & 브로콜리에는 양배추와 더불어 편안한 속이 도움이 되는 부원료까지 함께 넣었습니다. 옛 고사에서 속을 다스리는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청출과 진피까지 더해 속을 더욱 편안하게 지켜줍니다.

4 100% 제주산 무농약 양배추 사용! CJ가 만드니까 더욱 안심입니다

CJ 한뿌리 맛있는 양배추 & 브로콜리는 100% 제주산 무농약 양배추를 사용합니다. 우리 땅에서 정성껏 재배한 양배추만을 엄선한 것은 물론, 함께 사용된 부원료까지도 모두 100% 국·산이니까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셔 보세요!

- 코 막을 필요 없이, 정그릴 필요 없이 기분 좋게!
- 상온에서 편안하게 한 잔, 시원하게 마시면 더욱 맛있게!
-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1배, 맛있게 목 들이키며 상쾌한 시작
- 잠들기 전, 부담 없이 편안한 1배
-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 2배씩!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불규칙한 식습관, 바쁜 현대 직장인들
- 매운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
- 양배추 특유의 향과 맛을 꺼려하셨던 모든 분들
- 양배추즙을 이제는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
- 집에서 일일이 만들어 드시기 귀찮으신 분들

고민 끝! 든든한 한뿌리 양배추를 선택한 사람들

- "특유의 냄새가 좀 심해서 잘 못 먹었는데 여기 제품은 좀 달콤한 것 같아요. 아쉽, 저니 공복에 한 볼 꼭 마시고 싶은 속이 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 "원래 이런 제품을 맛에 민감해서 먹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아진 꾸준히 매일 매일 먹고 있습니다."
- "양배추 항상 속이 불편하다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우연히 알게 됐는데 먹고 나니 속이 편해지는 게 좋다고 차갑게 해서 갈증 날 때 한두 개씩 꼭 드신다 하네요."
- "특유의 양배추 냄새가 안 나고 상쾌하고 맛있네요."



100% 제주산 무농약 양배추 사용!
지금 바로 전화 주시는 분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CJ제일제당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722-9988